

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특별공급 실태 특정감사 결과

2022. 10.

금 융 위 원 회
감사담당관실

1. 감사실시 개요

☐ 감사배경

- 국토교통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‘캠코’)를 지도·감독하는 금융위원회에 캠코의 「이전 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(2021.11월)

☐ 법적근거

- 자산관리공사법 제47조, 제48조*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**

* 금융위는 캠코의 업무를 감독하며 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(§47).

금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캠코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업무상황이나 장부·서류·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(§48).

**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.

☐ 감사기간: 2022. 4. 25(월) ~ 4. 27(수), 3일간(근무일 기준)

☐ 감사요원: 감사담당관 외 2명

*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1명,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1명

☐ 감사중점

-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현황
-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경위
- 지역본부 근무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발급의 법령 위반 여부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- 「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」 제5조 (청약자격)에 따르면
 - 특별공급 대상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, 캠프코의 경우 본사와 부산지역본부만 포함됨에도
 - 캠프코는 2017년~2018년 특공시 12개 지역본부 근무자 61명에게까지 특공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
 - 캠프코는 ① '12.3.23. 「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」으로 “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라도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”를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부여된다며
 - ② 12개 지역본부를 잔류하는 부서로 보아, 지역본부 업무가 지역밀착형 업무를 수행할 뿐 본사 업무와 동일하여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았으나
 - 당초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사는 잔류부서에 미해당하고,
 - 본·지사간 동일한 중복적인 업무수행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이전하지 않고 지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이전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
 - 그럼에도 캠프코는 2017년~2018년 특공 대상자 확인서 발급 당시 「특공 운영기준」 등에 대한 해석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별도의 질의를 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
 - 한편, 캠프코는 특공 당첨 직원들을 2021.8월말 기준 전원 부산 본사로 이동 조치를 완료하였고, 특공을 받은 직원은 입주 기준일로부터 6년 이내에 최소 3년 이상 부산지역에 의무근무토록 후속조치를 함
 - 2017년~2018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발급 업무 담당자는 세 명으로, 과실로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책 사유에 해당하나(「캠프코 인사규정」 제44조(징계대상))
 - 징계시효가 도과하여(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) 문책은 불가함
- ⇒ 캠프코에 대하여 기관 경고, 업무 담당자 3명에 대하여 개인 경고